

## 일체는 망념에 의한 차별

| 월인 |

우리는 저 삼라만상의 세계가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  
합니까? 지구 밖에서 보면 지구는 아주 푸르고 매끈한 공처럼 생겼습니다. 그러  
나 우리는 울퉁불퉁하고 다채로운 지구에 삽니다. 더 나아가 그 굴곡진 사막의  
매끈한 모래 알갱이 한알 속으로 들어가보면 바이러스는 거친 산맥같은 모래 구  
조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 깊이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소립자의 에너지  
덩어리들이 움직입니다. 그와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의 차이는 사  
실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별하여 느끼고 보는 측정장치, 또는  
보는 눈에 있으며, 이는 분별되는 만물의 모습이 마음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합니다(저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 2. 진여문眞如門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여眞如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의 세계에서 논해지는 절대 진여와, 절대를 드러내는 어떤 현상으로서의 진여를 가리키는 생멸문의 진여입니다. 여기서는 그 중 절대적인 진여(심진여心眞如) 즉, 진여의 체體에 대해서만 논합니다.

心眞如者，卽是一法界大總相法門體。  
심진여자 즉시 일법계 대총상법문체

심진여란 일법계 중의 대총상 법문인 체體이다.

[논論]

심진여心眞如란, 마음에 있어서 진여의 측면인 본질을 가리킵니다. 일법계一法界란 진여문과 생멸문 모두를 포함한 전체를 뜻합니다. 하나의 법계, 일심一心의 세계죠. 그 일심一心의 세계에서 대총상大總相은 전체로서의 상相을 말합니다. 법문체法門體에서 법문은 그러한 법에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고, 그것이 바로 본체라는 뜻입니다.

所謂心性不生不滅。一切諸法唯依妄念而有差別。  
소위 심성 불생 불멸 일체 제법유의 망념이유차별

소위 마음의 본성은 불생불멸하니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망념에 의거하여 차별이 있을 뿐이다.

[논論]

마음의 본성, 곧 본질이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즉 심성이 불생불멸不生不滅하다는 것은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은 일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나타난 상相으로서의 과거와 미래가 존재한다고 믿을 때에만 죽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죽기 전까지만 의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때만 생명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일종의 감지感知<sup>TM</sup>요, 하나의 마음 현상일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시간 감각을 통해서 마음에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본성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감지를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본성은 모든 감지를 떠나 있고 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不生不滅하고, 일체의 법法 즉, 일체의 현상이 오직 망념妄念에 의하여 차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法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지요. 첫째는 부처님의 설법說法, 둘째로 진리로서의 법, 세 번째로 현상으로서의 법입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현상을 통해 나타나므로 그런 의미에서 법은 현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상의 법, 진리의 법, 부처님의 설법은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바로 현상의 법입니다.

### 현상의 원인은 분별하는 마음

일체의 현상이 오직 망념에 의거하여 차별이 있다고 했는데, 망령된 마음의 최초 모습이 뭐죠? 바로 전식轉識입니다. 전식은 한번 마음이 굴렀다, 즉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최초로 움직이면 ‘나

와 너’,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sup>1)</sup> 그 주객의 마음에 의해 드디어 대상들에 차별이 생겨나지요. 모든 차별은 사물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그림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끄러운 찻잔을 만지면 우리는 ‘그것’이 매끄럽다고 말합니다. 과연 ‘매끄러운 그것’이 있는 것일까요? 만일 바이러스가 찻잔 위를 지나간다면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거칠고 거대한 태백산맥을 넘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즉, 매끄러운 찻잔이란 우리 ‘손의 감각’에만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우리의 감각기관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끄러운 것, 저것은 거친 것으로 분별하는 감각과, 그 경험을 기억하여 사용하는 마음에게만, 이 대상과 저 대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현상이란 마음이 만들어내는 분별에 의해서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망념에 의한 차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념만 떠나면 일체의 경계상이 사라지고 일체는 나뉘지지 않는 불이不二의 세계가 됩니다.

진여의 체에는 세 가지 성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입니다. 변계소집성에 의해 나타나는 변계소집상(相)은, 두루두루 계산하고 따져서 거기에 집착하는 상(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相)이 없다는 것을 통해 ‘분별하여 집착하는 상(相)이 허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여의 체(體)의 한 특성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상(相)이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아서 새끼줄을 뱀으로 보게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

---

1) 깨어있기™ 설명 참조. 의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내면에 쌓인 경험의 흔적이 ‘나’가 되고 새롭게 감각되는 것이 ‘너’가 되어 주체와 대상이 생겨나는 과정

다.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이것이 착각된 상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 태어남은 의타성(依他性)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손잡이, 몸통, 물이 들어갈 빈 공간, 도자기, 불로 굽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 도자기 만드는 사람의 힘과 노력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나누어진 것들도 모두 상相인데, 컵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연법에 의한 모습일 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허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구나를 명확하게 봄으로써, 독립된 어떤 존재의 태어남이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타성에 의해 생멸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승기신론소에서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삼을 새끼줄처럼 꼬아서 노끈을 만드는데, 이때 노끈이라는 것은 ‘삼이 사람의 힘에 의해 꼬아진’ ‘모습’으로, 삼과 사람의 힘이 없다면 노끈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노끈이라는 것이 특별히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삼과 사람의 힘의 결합체라는 의미에서 의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탄생이 다른 것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독립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끈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과 사람의 힘이 합쳐져서 나타난 일시적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원성(圓性) 즉, 원만한 진실성입니다. 진여(眞如)는 원만상주(圓滿常住)해서 절대적이므로 아무런 모양도 없다고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삼 자체에는 ‘노끈’이라는 것과 뱀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삼과 노끈과 뱀의 비유로써 원성, 의타성, 변계소집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若離心念，則無一切境界之相。  
약 리 심 념 즉 무 일 체 경 계 지 상

만약 망념을 떠나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다.

[논論]

일체의 법法이 망념에 의거해서 차별을 이루었으니, 만약 망념을 떠나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계는 이것과 저것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경계상境界相입니다. 경계가 없다면 모든 사물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나뉘지는 것은 경계 때문인데 그 경계는, 분별하여 집착하는 변계소집성, 이것과 저것이 서로에 의존하는 의타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전식轉識(마음의 최초 움직임)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이 분별되고, 현식現識(현상을 드러내는 마음)에 의해서 대상이 하나하나 구분되어 다양한 사물이 생겨나고, 마음이 두루 두루 분별해서 어떤 것에 집착하는 상相이 나타나는 것이 변계소집상입니다. 일체의 모든 현상이 오직 망념妄念(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마음,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에 의해 차별이 있으니 이 망념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지感知<sup>TM</sup>(용어정의 참조) 연습을 해보면, 컵을 볼 때의 느낌은 핸드폰을 볼 때의 느낌과 다릅니다. 즉, 마음에서 서로 다르게 구별되기 때문에 컵이라는 외부의 사물이 있다고 의식이 분별합니다. 단순히 이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현상은 마음이 느낌으로 분별해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어린애는 마음속에 어떠한 분별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른과 똑같은 시각능력이 있는데도 왜 어린애는 어른처럼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영어를 들었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영어 알파

벧이나 각각의 영어단어 의미에 대해 감각적 분별은 있으나 마음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구별해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런 저런 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의미’있는 내용으로 구별하려면 마음속에 영어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이 저 밖에서 세계를 보고, 이해하고, 의미로 와 닿는 모든 것은 마음속에 그런 ‘세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밖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은 의미 없는 낱것의 ‘소리’일 뿐입니다.

뭔가를 분별해내고 나면 이제 그것의 의미에 따라 좋고 나쁨이 생겨나는데, 그 마음의 흔적이 없을 때는 분별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좋고 나쁨 또는 이것과 저것을 분별함은 마음속에 경계를 짓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컴퓨터와 탁자와 의자를 구별해내는 것은 마음의 상상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계소집상입니다. 두루 두루 계산해서(遍計) 무언가에 집착하는 바(所執)의 상相,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집착하는 상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변계소집상이 없으면 일체의 법法(현상)은 없습니다. 마음이 구별해내는 것이 없으면 일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불이不二의 세상으로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망념을 떠나면, 즉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의타성에 기반한 신경심리학의 켈리아

是故一切法從本已來.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畢竟  
 시고 일 체 법 종 본 이래 리 언 설 상 리 명 자 상 리 심 연 상 필 경  
 平等. 無有變異. 不可破壞.  
 평 등 무 유 변 이 불 가 파 괴

이러한 이유로 일체의 법은 본래부터 언설상言說相을 떠나고, 명자상名  
字相을 떠나고, 심연상心緣相을 떠나서 결국 평등하게 되고, 변이變異가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다.

[논論]

일체의 법法은 본래 말과 생각의 상相을 떠나고, 이름과 글자의  
상相을 떠나고, 마음의 인연상因緣相을 떠나 있습니다. 언설상은 말과  
생각의 세계입니다. 이름 붙은 것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꼬리에 꼬리  
를 물고 이어지는 세계가 바로 말과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 언설상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의 흔적에 이름을 붙여 놓은 세계, 즉 명자상名  
字相입니다. 심연상心緣相은 마음의 인연에 의해서 생겨진 상으로, 바로  
우리가 감지感知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언  
설상은 생각의 세계, 명자상은 이름의 세계, 심연상은 감지의 세계라  
고 이해하면 됩니다.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은 모두 의타성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속의 어떤 느낌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컵의 등  
그런 느낌은 둥그렇지 않은 느낌에 의존합니다. 즉, 네모 또는 직선의  
느낌을 내적으로 기준 삼았을 때만 것처럼 둥그렇게 ‘느껴’집니다. 신  
경심리학에 퀄리아Qualia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이지요. 이렇게 의타  
성에 기반한 것이 심연상입니다. 마음의 인연에 의해서 상相이 나타나  
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감지感知<sup>TM</sup>(이름과 개념이 붙지 않은,  
그러나 대상들 간에 구별되는 최초의 느낌)죠. 그러므로 감지도 일종의 상대  
적인 느낌이에요.

그런 심연상마저도 떠나면, 즉 감지마저도 떠나 감각感覺<sup>TM</sup>(삼매三  
昧와 같이 일시적으로 빈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필경평등 무유변  
이 불가파괴畢竟平等 無有變異 不可破壞, 즉 평등하여 변이가 없고 파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파괴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컵

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컵’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으므로 그 컵을 파괴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감각 상태로 들어가면 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각感覺<sup>TM</sup>(용어정의 참조) 상태에서는 컵을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파괴하겠어요? 즉, 상相을 노끈이라고 보고 노끈을 뱀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뱀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노끈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끈이라는 것 또한 원래 없으니까요. 그것은 그냥 삼일 뿐입니다. 노끈은 상相과 용도로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본질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을 엮어서 만든 것이 노끈이니까 노끈을 없앨 수가 없어요. 노끈을 자르고 잘라도 거기에 노끈은 원래 없고 삼만 있었을 뿐이니까요. 필경평등畢竟平等은 본질적으로 증감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 일체는 망념에 의한 차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일체는 망념에 의한 차별일 뿐이며 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전식轉識, 대상을 여러 가지로 분별하는 현식現識, 분별된 대상에 좋고 나쁨이 붙는 지식智識 등과 같은 마음의 상태(妄念)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일 뿐, 그런 망념이라는 것이 없으면 본래는 일체의 구별되는 현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분리하고 나누는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일체 현상이 없으며, ‘없다’는 것마저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변계소집상의 무상無常함이라 합니다. 그럼 변계소집은 왜 무상할까요? 왜 항상恒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 저 탁자의 ‘둥그런 느낌’인 감지(感知)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둥글지 않은 느낌’이 이미 내 마음의 배경으로 있는 상태에서 둥근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과 비교하여 둥글다고 ‘느끼게’ 됩니다. 즉, 마음의 배경인 ‘각진 느낌’이 사라진다면 이 탁자도 더 이상 둥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원초적인 감각적 기준에 의해 구별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계소집의 무상함입니다. 즉 둥근 탁자가 둥글게 느껴지는 것은 네모난 것들 때문이고, 네모난 것들이 네모나게 느껴지는 것 또한 둥근 것에 대비하여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니, 감지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들과 대비되어 느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다른 것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변계소집상의 무상성입니다.

### 주관적인 객관

원효의 설명에 의하면 변계(遍計)는 능변(能遍)과 소변(所遍)으로 나뉩니다. 주관적인 측면인 능변과 객관적인 측면인 소변은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밖의 사물이라는 ‘객관’ 역시 주관인 능변에 의해서 ‘오염된 객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식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컵이든 탁자든 내가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보지만 엄밀하게는 다 자기식대로 봅니다. 동일한 자동차를 보고 누구는 멋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대상이 그것을 보는 주관적인 능변에 의해서 오염된 상(相)이지요. 그러므로 객관적인 대상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이미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순

수한 객관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객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객관 자체가 사실은 주관이며, 세상에는 객관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학(唯識學)의 핵심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세상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지요? 분별되는 세계는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며 인식작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감(六感)에 의한 육식(六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칸트가 말한 ‘물물 자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교의 유식학에서 말하는 능변, 소변과 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감에 의한 육식(六識(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으며, 마음의 흔적에 의해서 비틀린 채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에서는 이 부분을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틀린 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 자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관찰자에 의해서 사물은 달라보이게 된다는 관찰자 효과를 주장하죠. 빛이 파동이라고 가정해서 장치를 구상해 실험해보면 빛은 파동으로 보이고, 빛이 입자라고 가정해서 장치를 만들어 실험해보면 빛은 입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빛은 ‘입자다’ 또는 ‘파동이다’라는 것도 우리의 능변(能遍)에 의해서 오염된 소변(所遍)일 뿐입니다. 즉, 빛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죠.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커다란 두 가지 방식이 파동과 입자일 뿐입니다. 빛은 결코 파동도 입자도 아닌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입자나 파동적인 면만 뽑아서 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엄밀히 말해서는 ‘코끼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마음이 만들어낸 상(相)일 뿐이라는 거죠.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

유에서죠. 관계라는 것은 분별된 두 개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분별 자체를 마음이 만들었어요.(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을 신봉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십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깨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부동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불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